



유태인
02-3770-5571

이재형
02-3770-5579

김현수
02-3770-5582

신연화
02-3770-5721

공문주
02-3770-5586

이소윤
02-3770-5572

황태웅
02-3770-5578

발간일: 10.11 (금)

10.10 (목)	1d	5d	1M
CP 91d	3.590	+0.0	+0.0
CD 91d	3.500	-1.0	-3.0
KTb 3y	2.962	+3.0	+15.1
KTb 5y	3.014	+1.6	+12.7
KTb 10y	3.088	+1.1	+9.6
KTb 20y	2.937	-1.0	+3.3
KTb 30y	2.908	-1.3	+3.6
국민주택 5y	3.184	+0.1	+10.9
한전 3y	3.313	+2.7	+14.0
산금 1y	3.225	+0.4	+4.2
회사 AA-	3.542	+2.5	+14.5
회사 BBB-	9.402	+2.8	+14.2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 추이 (1M)			
회사채 등급별 스프레드			
		1d	5d
AA-	57	+0.0	-3.0
A+	92	+0.0	-1.0
A0	118	+0.0	-1.0
A-	161	-1.0	-2.0

여전채 등급별 스프레드			
		1d	5d
AA+	42	-1.0	-3.0
AA	48	-1.0	-3.0
AA-	58	-2.0	-3.0
A+	152	-1.0	-3.0

금융채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 (3y, 여전채-회사채)			
		1d	5d
AA	4	-1.3	-0.5
A+	60	-0.7	-1.6

국고채 장단기 금리			
		1d	5d
10y-3y	13	-2.0	-2.8

국고 10년, 회사채 3년 스프레드			
		1d	5d
10y-3y	-45	-2.2	-0.6

전일 주요 채권 관련 기사

* 금융투자협회 "세계국채지수 편입 환영...장외채권 인프라 개선"

- 금융투자협회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한국이 편입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과 기대를 표명한다"고 밝힘
- 금융투자업계가 WGBI 편입을 계기로 국채금리·환율 안정,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수요 확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함
-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투자업계는 앞으로도 정부의 자본시장 국제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설명

연합뉴스(10/10)

* 회사채 시장 큰 손이 바뀌었다... 한화, SK 제치고 3분기 선두

- 올해 3분기 한화그룹이 국내 그룹 중 회사채를 가장 많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SK는 2위, 삼성그룹도 회사채 조달에 적극 나서며 발행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섬
- 한화그룹의 발행이 급증한 데에는 보험사 자본충당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한화생명보험은 3분기에만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한화손해보험도 35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
- 한화에너지는 15일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에 나서 최대 15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지주사 지분 매입과 전략 사업 투자로 차입금을 늘리는 모양새

매일경제(10/10)

* 방향성 잃은 크레딧 시장...여전채·회사채 발행 강세 배경은

-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크레딧 시장은 방향성을 잃은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음
- 공사채 가산금리(스프레드) 축소세가 전보다 주춤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여전채와 회사채는 언더 발행을 지속하고 있음
- 양도성예금증서(CD)와 채권 금리가 역전되면서 비교적 금리가 높은 채권으로 수요가 쏠린 여파로, 이후 CPI와 금통위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다시 설정될 것으로 보임

연합인포맥스(10/10)

* 하반기 증권채 '러시'...내주 신한·한투證 수요예측







-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조달금리가 낮아지자 단기자금을 찾던 증권사들이 회사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
-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자금 대비 회사채 매력도가 커진 상황
- 회사채 발행이 줄어드는 '연말 효과'를 앞두고 회사채를 통해 자금조달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지속되겠지만, 발행 환경은 증권사별 상황에 따라 차등화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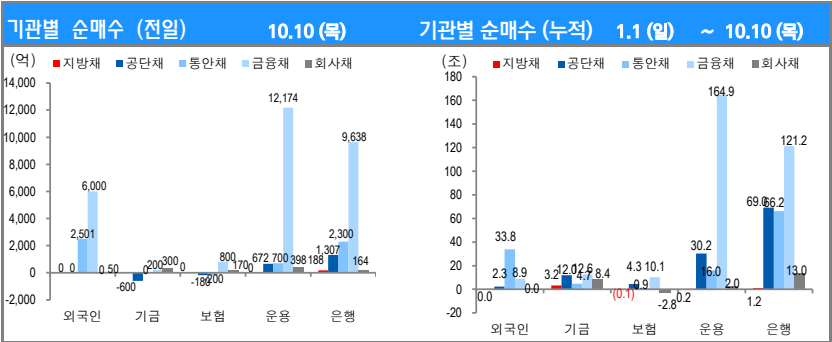
연합인포맥스(10/10)

수요예측											
수요예측일	발행회사	회차	적용등급	발행금액	발행일	만기일	가산 이율	미매각 금액	경쟁률	주관사	비고 (자금사용 목적 등)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전일자 주요 회사채 발행 정보											(단위: 억원, %)
종목명	발행일	만기일	통화구분	발행액	표면금리	이자유형	공/사모	신용등급	옵션구분	이자지급기간	
우리금융조건부(상)18(신종)	2024-10-10	9999-12-31	KRW	4,000	4.00	FRN	공모	AA-		3 개월	
중앙홀딩스4	2024-10-10	2025-10-10	KRW	180	7.30	이표채	사모			3 개월	
소니드31CB	2024-10-10	2027-10-10	KRW	20	2.00	이표채	공모			3 개월	
국민행복제6차3	2024-10-10	2025-11-24	KRW	7	4.03	할인채	사모	AAA		12 개월	
와이디피제이차4	2024-10-10	2025-11-07	KRW	6	3.90	할인채	사모			12 개월	

주요 등급 변경											
회사명		변경일	변경등급	직전등급	구분	회사명		변경일	변경 등급	직전등급	구분
1	고려아연	2024-10-02	AA+	NA	신규	태왕이앤씨	2024-09-23	B+	BB-	하락	
2	현대카드	2024-09-30	AA+	AA	상승	한국유니온제약	2024-09-23	CCC	B-	하락	
3	케이카캐피탈	2024-09-23	BBB	NA	신규	한국유니온제약	2024-09-20	B-	B	하락	

주요 채권 분류별 만기 / 발행 / 순발행					단위: 억원, % 조원(발행잔액)
채권종류	발행	순발행	발행잔액	발행잔액추이 (2024/1/1~)	
국채	0	(10000)	1141.5		
지방채	0	+0	28.5		
공사공단채	500	+500	463.6		
통안증권	0	+0	108.7		
금융채	43300	+35200	581.2		
회사채	4215	+3151	417.1		



전일 주요 회사채 거래						(단위: 억원, %, bp)
종 목	만 기	거래금액	수익률	민평수익률	민평대비(bp)	
지에스에너지17-1	2027-10-04	1,194	3.33	NA	NA	
롯데쇼핑99-1	2026-04-16	811	3.50	NA	NA	
우리금융조건부(상)18(신종)	9999-12-31	590	4.00	NA	NA	
하나증권5-3	2025-09-01	494	3.45	NA	NA	
신한투자증권2402-1	2026-02-19	405	3.35	NA	NA	
뉴테라제팔차1-1	2025-04-18	404	4.03	NA	NA	
GS건설144-1	2025-12-03	404	4.84	NA	NA	
롯데건설148-1	2026-01-26	403	5.37	NA	NA	
신한금융지주167-2	2029-07-22	402	3.31	NA	NA	

